

만화 최창조의 풍수 강의 **명당은 마음속에 있다 2**

최창조 원저 | 김진태 만화 | 반양장 | 153x214 | 184쪽 | 값 12,000원
2015년 5월 27일 펴냄 | 고릴라박스 | 978-89-6548-240-6, 978-89-6548-238-3(세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한 풍수학자 최창조 선생이 들려주는 진정한 명당 찾기!

풍수학자 최창조 선생 저서들의 핵심 내용을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만화 최창조의 풍수 강의』 2권이 고릴라박스에서 출간됐다.

최창조 선생은 풍수술을 풍수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듣는 한국 풍수지리학의 대가이다. 미신으로 치부되던 전통 풍수에 현대 지리학을 접목시켜 풍수의 현대화와 새로운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굳혀왔다. 또한 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속신(俗信)에 바탕을 둔 중국 풍수와 달리 우리나라 풍수는 고유의 방식으로 풍수 개념이 자리 잡았다는 자생풍수론(自生風水論)을 펼쳐, 풍수를 우리 시대 인문학 담론으로 당당하게 제시하였다. 최창조 선생은 제대로 풍수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뒤, 30여 년간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롭고 합리적인 풍수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 구석구석 땅을 밟으며 풍수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풍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집대성하였고,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때문에 ‘당대 최고의 풍수 전문가’이자 ‘풍수 대중화의 주역’으로 꼽힌다.

“이번에 풍수를 만화로 내면서 필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의 여부는 독자들 몫이지만, 개인적인 희구(希求)가 바로 그렇다. 만화의 특성상 과장되고 흥미를 끄는 억지스러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풍수를 단순히 미신(迷信)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양서로서, 풍수가 어려운 술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을 넘어서지 않으며 우리 풍토에 좋은 지혜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작가의 말 중에서)

명당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최창조 선생이 말하는 명당의 실체

배산임수, 로또 명당, 남향집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 게 풍수다. 중세 이후 우리나라 역사는 풍수적 세계관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 유교의 효 사상과 결합한 음택(陰宅), 즉 뒷자리 잡기 열풍을 비롯해 옛사람들의 역사, 철학, 과학, 생활 등 어디에나 풍수적 사고와 문화가 녹아 있다. 풍수가 보편화되고 풍수를 배워야 엘리트 대접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창조 선생은 오늘날 전통 풍수의 모든 것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현대에 맞게 변용(變容)해야 한다고 말한다. 풍수는 근본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선인들의 지혜이다. 전통 풍수는 농촌을 대상으로 생긴 땅에 대한 경험 과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명의 발전과 도시 개발로 적용 가능한 풍수 이론의 근거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도시화 비율이 80%가 넘어선 오늘날, 과연 '배산임수'를 골자로 하는 명당은 어디에 있는가? 최창조 선생은 풍수에서 말하는 완벽한 명당은 없다고 말한다. 장풍(藏風), 득수(得水), 간룡(看龍), 좌향(坐向), 형국(形局) 등 전통 풍수에서 말하는 이상적 조건을 알리는 충족하는가를 찾아야 하며, 부족한 땅은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명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수를 현대에 맞게 고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창조 선생은 명당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로 누구나 자신만의 명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명당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만화 최창조의 풍수 강의』는 이기적인 술법으로만 왜곡되어 온 풍수의 본질부터 사람들이 흔히 발복을 받기 위해 찾는 명당의 실체까지, 풍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 준다.

최창조 평생의 업적이 녹아 있는 제대로 된 풍수 입문서

최창조 선생은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직관에 의지하고 주관적인 면이 많아 미신으로 치부되던 전통 풍수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실용 학문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치유와 비보(裨補)로서의 자생풍수가 이어져 왔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자생풍수는 발복(發福)이 목적인 중국 풍수와 달리 조화로운 삶을 중요시하는 양택(陽宅) 풍수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의 지리학'이라고 말한다. 음택(陰宅)에 대해 부정적이고 풍수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했던 그는 우리나라 풍수계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한국의 풍수가 완벽하게 하나의 학적 틀을 갖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그의 고민과 열정은 30여 년간 10여 권의 저서를 낳았다.

두 권으로 기획된 『만화 최창조의 풍수 강의』는 최창조 선생의 풍수에 대한 땀과 열정으로 집필한 저서들을 토대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풍수 상식을 만화 형식으로 가볍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길창덕, 윤승운의 뒤를 잇는 현역 최고의 명랑만화가 김진태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돋보인다. 풍수 문외한이었던 김진태 작가는 최창조 선생의 저서들을 2년 넘게 꾸준히 탐독하고, 최창조 선생을 수차례 인터뷰하며 각색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기적인 술법으로 폄하되어 온 풍수의 본질부터 명당의 실

체까지 풍수 초보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보여 주며, 누구나 쉽게 풍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풍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풍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풍수 입문서가 될 것이다.

● 목차

1화 나쁜 땅은 없다!

상식 이야기 풍수 ① 자생 풍수의 창시자, 도선 국사

풍수 Q&A ① 우리나라 풍수의 역사는?

2화 자연의 기氣를 얻어라!

상식 이야기 풍수 ② 음향오행과 풍수

풍수 Q&A ② 기氣란 무엇일까?

3화 용龍을 잡아라!

상식 이야기 풍수 ③ 현대인을 위한 도시 풍수

풍수 Q&A ③ 지관들이 사용하는 나경이란?

4화 제대로 집을 짓는 법

상식 이야기 풍수 ④ 외국에서 인기 만점, 인테리어 풍수

풍수 Q&A ④ 조상들이 지명地名으로 예언을 했다는데?

● 작가 소개

원저 최창조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및 전북대학교 강사를 거쳐 국토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청주사범대학 지리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 이론』, 『한국의 자생풍수』1·2, 『한국의 풍수지리』, 『한국의 풍수사상』, 『사람의 지리학』,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도시 풍수』, 『좋은 땅은 어디를 말할인가』, 『땅의 눈물, 땅의 희망』, 『풍수잡설』,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 『한국 풍수인물사』 등이 있고, 역서로 『청오경·금낭경』, 『서양인이 본 생활풍수』가 있다.

만화 김진태 |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주간만화」 카툰 부문 신인상 수상으로 데뷔했으며, 제1회 독자만화대상 시사만화 부문, 부천만화축제 일반만화부문, 『으랏차차 삼국유사』로 2012 부천 만화대상 어린이 만화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대한민국 황대장』, 『시민쾌걸』, 『바나나걸』, 『와일드 와일드 워커스』 등이 있으며, 현재 『굿모닝 보스』와 『사또 in Da Haus』를 연재하고 있다.

● 상세 이미지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이나 무덤을 볼 때 사람들은 풍수를 신경 쓰게 되는데, 풍수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구분됩니다.

땅이 기운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한 기상학적 인식 체계.

땅에 대한 경험과 과학이 축적된 논리 체계지요.

풍수 이론

기상학적(氣象學的) 인식 체계 동기감응론 소주길흥론 현국론	경험과학적(經驗科學的) 논리 체계 간룡법 정풍법 독수법 정찰법 좌왕론
--	--

2화 | 자연의 기운 알아!

동기감응론 同氣感應論

예로부터 조상들은 천지만물에 가득 찬 기운 받아들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왜 제겐 그 기운 느껴지지 않죠?

몸과 마음이 온갖 세상의 고민으로 복잡하기 때문이지.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그게 쉽나~

그래서 우리 도인들이 수련을 하는 거야.

다행히도 수련을 쌓지 않고 자연의 기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풍수 술법이다.

와

2화 | 자연의 기운 알아!

소주길흥론 所主吉興論

윤리성을 강조한 풍수 이론이죠.

아무리 좋은 땅을 구해도 실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했다면 소용없는 땅이 되어 버린다고.

실아개신 부모 보기를 빗장 대하듯 하던 사람이 돌아가신 뒤 부모를 친하의 명당에 모신다 한들 헛일이라는 것이다.

보지

또 땅을 살 사람의 사주팔자(命八字)가 그 땅의 요행과 잘 맞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사주팔자, 길흉화복 같은 건 명리학(命理學)이죠?

소주길흥론은 사주명리학과 풍수역리가 만났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잠깐! 명리학이란?

2화 | 자연의 기운 알아!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네 가지가, 곧 사주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으로, 사주학(命相學)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를 이렇게 연, 월, 일, 시라는 네 가지 큰 기운으로 보는 거야.

기둥 주춧돌 써서 사주라고 하지.

하나의 기둥은 10간과 12지로 나누는데

방위를 의미하는 10간은 간을병정무기경신임계, 12지는 지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각도를 의미하는 12지는 지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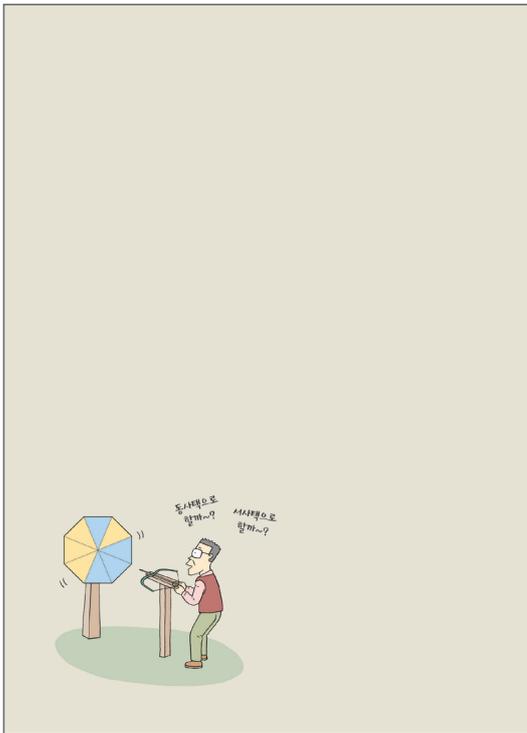
각각의 사주에 간지가 따르니 생년월일에는 여덟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모두 여덟 글자.

그래서 팔자(八字)라는 말이 나왔다.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 이 꼴로 사는구나~

2화 | 자연의 기운 알아!



상식 이야기 풍수 @ 외국에서 인기 만점, 인테리어 풍수

